



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거리 1950년대

일찍이 히라카타슈쿠는 히라카타의 역사와 문화의 기틀을 다졌고, 그 후에도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거점으로 번영하였습니다. 특히 히라카타슈쿠의 중심 시설이었던 돈야바와 혼진, 고사쓰바 등은 이 미쓰야amura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. 사진은 1950년대까지 이 부근에 있던 히라카타 신용금고입니다.

제공:히라카타 신용금고